

“책임형 리더십 선출해야”...목포시장 선거 관심 집중

지역 정가·시민사회 등 열망 ‘최고조’ 측근 인사 등 구태 정치 원천 차단 성수동 사례 빚댄 시민주도형 발전도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장기간 이어진 목포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의 종식을 앞두고 차기 리더십을 향한 시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일 목포 지역 정가와 시민사회 등에 따르면 목포시장 선거에 강성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용환 조국혁신당 지역위원장, 박홍률 전 목포

시장, 여인두 정의당 지역위원장, 윤선웅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이호균 목포과학대 총장, 전경선 전남도의회의원 등이 뛰고 있다.
목포시는 역대 선거마다 후보들은 ‘시민 통합’을 외쳤지만 당선 직후에는 어김없이 측근 중심의 보은 인사와 편 가르기식 행정이 반복돼 왔다.
이번 선거는 단기적 성과에 급급한 행정이 아닌, 법과 절차,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책임형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원천 차단으로, 시장의 가족이나 친인척,

선거 캠프 측근들이 공식 직책 없이 시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행정을 사유화했던 뼈아픈 과거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출자·출연기관 역시 선거 공신들의 전유물인 ‘낙하산 인사’ 관행을 타파하고, 철저한 전문성 중심의 투명한 선임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시청 내부 조직을 병들게 하는 불공정 인사와 선심성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정 인맥이나 선거 기여도에 따른 줄세우기 식 인사를 배제하고, 공직자가 시장 개인이 아닌 시민과 원주민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 문화가 절실하다.

아울러 막대한 이권이 개입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표를 의식한 퍼주기 식 예산 편성을 철저히 경계해 도시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것도 차기 시장의 핵심 덕목이다.
전문가들은 목포의 미래 생존을 위해 ‘지속 가능한 도시 전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린이·임산부·청소년 맞춤형 정책은 물론, 원도심·신도심의 균형 발전,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 따른 주사무소 위치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을 주먹구구식이 아닌 데이터와 철저한 공론

화에 기반해 풀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 도시재생의 성공 모델로 꼽히는 서울 성수동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쇠락한 공장지대였던 성수동이 문화와 창업의 핫플레이스로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관 주도의 일방적 개발이 아니라, 주민과 청년, 예술가들의 역량이 결합될 수 있도록 행정이 든든한 ‘플랫폼’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전문가는 “누가 시장이 될 것인가를 넘어 ‘우리 목포는 어떤 도시가 될 것인가’를 시민 스스로 치열하게 묻고 답하는 주체적인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나주시는 최근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2026 나주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참가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 (나주시 제공)

“500만 관광시대 도약”...나주방문의 해 선포

‘머무는 곳’으로 체류형 패러다임 전환 홍보대사 위촉...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나주시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2026 나주방문의 해’의 웅장한 서막을 울리며 ‘500만 관광시대’ 도약을 향한 닳을 높이 올렸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관광 유관기관, 여행업계, 주한 외교공관(태국·동티모르·필리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나주방문의 해 선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나주의 다채로운 매력을 전국에 알리고 글로벌 관광 협력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주시는 이를 기점으로 기존 스페셜 시티가 아닌 ‘당일형 관광’에서 벗어나, 영산강 중심의 역사·문화 자원과 다채로운 야간 콘텐츠를 총합하여 ‘지역 체류형 관광’으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

한다는 구상이다.
성공적인 방문의 해를 이끌 든든한 민관 협력망도 튼튼하게 구축했다. 세계적인 베드민턴 스타 안세영, 국민배우 정보석, 요리명장 안우성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브랜드 파워를 극대화했다.
이와 함께 한국관광공사, 하나투어와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맺고 맞춤형 공동 마케팅과 매력적인 체류형 상품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행사장에서는 영산강을 테마로 한 관광 주제관과 지역 명인들의 수준 높은 사진전이 함께 열려 참석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방문의 해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켰다.
나주시 관계자는 “관광이 나주의 경제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관광객의 체류가 지역 상권의 소비로 직결되는 완벽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역사적 품격과 영산강의 휴식, 꿀잼 콘텐츠가 어우러진 나주에서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영광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오늘부터 내달 13일까지 8개 분야

영광군은 2일 “군민 생활과 지역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타파하고 체감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3월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026년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법령·제도적 결함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안과 ▲적극행정 ▲생활·복지 ▲기업·신산업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행정 규제 전반을 아우른다.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군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이나 방문·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제안의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해 우수 아이디어 6건을 최종 선정하고, 총 17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불편을 겪던 군민들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제도를 바꾸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일상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혁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완도군, ‘치유의 섬’으로 인구감소 위기 돌파

행안부 평가 우수...국비 120억 확보 해양·산림 연계 13개 특화 사업 추진

완도군이 100억여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 투입해 인구 감소 위기를 돌파하고 ‘치유의 섬’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가동해 나갔다.
2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치유 산업 중심의 인구 정책을 높이 평가받으며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 국비 120억원을 확보했다.
군은 이를 마중물 삼아 해양·산림 자원을 연계한 13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하드웨어 분야에 88억원을 투입해 산림

치유 시설 및 블루치유 가든 조성, 청년 공공 임대주택 건립, 노화·소년 연도교 건설 등 주민 정주 여건과 생활 기반을 대폭 확충한다.
소프트웨어 분야에는 27억원을 배정해 완도왔섬 힐링 패스, 치유 셔틀버스, 장기 해양치유 프로그램 등을 다채롭게 운영하며 체류형 인구유입을 견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블루푸드 창업을 적극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는다.
완도군 관계자는 “해양과 산림을 아우르는 총체적 치유 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을 넘어 든든한 생활 인구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사업이 획기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무안 오룡지구 신설 유치원 부실시공...학부모 ‘불만’

오늘 사랑유치원 개교...180여명 입학 웬스 양카 노출 등 안전사고 위험 우려

“다른 학교 개교가 늦어지는 것도 화가 나는데, 당장 아이들이 등원할 유치원이 엉망으로 지어져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무안 오룡지구 초·중·고교의 개교 지연 사태에 이어 신설 유치원의 부실 시공 논란까지 겹치며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일 전남도교육청과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3일 개교하는 무안군 오룡지구 내 사랑유치원은 180여명의 유아들이 입학한다.
하지만 사랑유치원의 외곽 대지 경계면은 경사면을 따라 적층 형태로 쌓아 올린 조경석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어 한눈에 보기에 위태로운 모습이다.
인근 교회와 맞닿은 경계 웬스 기초 부위는 고정용 샤프트양카가 시멘트 밖으로 흥하게 노출돼 있으며, 볼트가 외부에 드러나 부식에 취약할뿐만 아니라 구조물과 단단히 밀착되지 않아 강풍이나 작은 충격에도 웬스가 통째로 넘어갈



위험도 우려되고 있다. (사진) 더욱이 웬스 바로 옆에는 원생들이 뛰어 놀 놀이터가 자리하고 있어 아찔함을 더하고 있다.
현장을 둘러본 한 토목 전문가는 엉성하게 쌓인 돌 틈새를 가리키며 “석축의 맞물림이 견고하지 못하고 배수 대책이 턱없이 미흡하다”며 “아이들이 뛰어노는 유치원 담장임을 고려할

때 명백한 부실시공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미 오룡지구 내 다른 학교들의 개교 시기를 맞추지 못해 거센 비판을 받는 와중에, 어렵사리 문을 여는 유치원마저 ‘날뎀 공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전남도교육청을 향한 주민들의 행정 불신은 극에 달한 상태다.
한 입주 예정자는 “개교가 늦어지는 것도 화가 나는데, 아이들이 다닐 유치원은 엉망으로 지어지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현장 관리 감독 의무를 철저히 외면한 결과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무안 오룡지구 내에는 유치원을 시작으로 다수의 초·중·고교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랑유치원 사태를 계기로 지구 내 공사 중인 모든 교육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점검과 시공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별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신안군-국립수목원, ‘자생식물 세밀화 도감’ 발간

신안군은 “최근 국립수목원과 다도해의 고유한 생물다양성을 정밀하게 기록한 ‘신안 자생식물 세밀화 도감’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도감은 지난해 체결한 업무협약 일환으로 신안군 지역명 식물(신안새우난초 등 14종)을 비롯해 35과 55속 55종 1아종 7변종 등 총 65분류군이 수록됐으며, 형태적 특징을 정밀하고 생생한 세밀화 기법으로 오롯이 담

아냈다.
특히 특산식물 13종, IUCN Red List 기준 위기급종(CR) 11종, 위기종(EN) 6종, 취약종(VU) 10종 등 위협범주식물 27종을 포함해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의 생물다양성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섬 지역 식물 자원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든든한 학술적 토대이자, 향후 생태 교육과

전시의 핵심 기초 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군은 이를 마중물 삼아 천사뮤지엄파크 내 자생식물 전시원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오는 7월7일 열리는 제20회 세계섬학술대회(ISIS A)에서도 국립수목원과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천혜의 자연을 품은 신안의 생태 보전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자생식물 연구와 활용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안=양훈 기자



해남군은 최근 삼산면 평화리 일원에서 명현관 해남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남스포츠파크’ 준공식을 개최했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 체류형 스포츠 관광 육성 본격화

郡, 삼산면에 ‘해남스포츠파크’ 준공 8만7천여㎡ 규모...경제 활력 기대

해남군이 세계적 스포츠마케팅의 새로운 심장부가 될 ‘해남스포츠파크’의 문을 활짝 열고 체류형 스포츠 관광(SPO-TOUR) 육성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2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삼산면 평화리 일원에서 급증하는 생활체육 수요와 전지훈련 유

치를 이끌 제2스포츠타운 ‘해남스포츠파크’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총면적 8만7천707㎡ 규모로 조성된 이 스포츠파크는 국제 규격의 축구장 1면(관람석 306석)과 정식 야구 전용구장 1면, 1만3천207㎡ 규모의 복합구장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스포츠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췄다.
현장의 반응은 벌써부터 폭발적이다. 올해 동계훈련 기간에만 1만여명의 선수단이 쇄도했으며, 허구연 KBO 총재가 직접 현장을 찾아 시설을

점검할 만큼 체육계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군은 이번 체육 시설 확충을 마중물 삼아 해남읍과 대항사 권역을 잇는 총체적 ‘스포츠 벨트’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올해 동계훈련 유치 4만1천여명, 41억여원의 매드급 지역 경제 유발 효과를 거둔다는 복안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스포츠파크는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대한민국 스포츠마케팅의 1번지로 도약할 핵심 거점”이라며 “스포츠로 사람이 모이고 골목 상권이 든든하게 살아나는 선순환 생태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